**와시노키 유적**

와시노키 유적은 홋카이도 남부 모리마치에 위치한 유적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 홋카이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환상 열석(폭 37m)입니다. 기원전 2,000년경에 형성된 이 유적은 아오모리현과 아키타현에서 발견된 같은 시기의 환상 열석과도 유사성을 보입니다. 도호쿠 지방 북부와 홋카이도 남부에 있는 환상 열석은 이 두 지역 사이에서 문화가 공유되었다는 증거로 여겨집니다.

환상 열석의 구성

이 환상 열석의 바깥쪽에는 2개의 고리가 있고 중심에는 타원형의 배석이 있습니다. 환상 열석을 구성하는 602개의 돌 대부분은 땅에 박힌 상태로 똑바로 서 있으며 다양한 각도로 안쪽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돌들은 약 1km 떨어진 가쓰라강 하구에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상 열석 근처에서는 무덤 구덩이와 오징어 모양의 작은 토제품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환상 열석의 보호

언덕 위에 자리한 이 환상 열석은 2003년 고속도로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유적을 보호하자는 활동이 결실을 맺어 이 언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적 아래에 터널을 뚫는 계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터널을 공사하면서도 항상 진동을 감시하며 돌이나 지층이 움직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고 일부 작업은 동력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환상 열석은 본래의 장소에 그대로 유지된 채, 아래로는 고속도로가 지나는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환상 열석의 견학

이 유적은 소재지 문제로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모리마치 유적발굴조사사업소에서 실시하는 견학회를 통해서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소에서는 환상 열석과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는 전시실을 마련하여 입장료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일본어로만 제공합니다.